시장 직속 막강 파워 '광주시 포청천' 뜬다

감사위원회 설치 조례안 시의회 통과… 연내 출범

비상임 市 3명·의회 2명 추천 市·산하기관 감사·처분

광주시에 독립된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등을 거쳐 늦어도 연말 안에 출범하기로 했다. 시장 직속에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직무에 대해 독립된 지위를 갖는 등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

그동안 감사관실은 행정부시장 직속 기구였다. 이번 감사위원회 도입은 충남과 서울에 이어 세 번째다. 특별자치도인 세종시와 제주도도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 초 감사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감사위원 추천 문제로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9개월 가까이 표류했다. 전체 7명인 감사위원 중 시의회는 2명인 추천 몫을 확대해 줄 것을, 시는 당연직인 감사관과 상임위원 등 2명을 빼면 3명에 불과한 만큼 어렵다고 맞섰다. 결국 5명의 비상임 위원에 대한 추천은 시가 3명, 시의회가 2명 하기로 했다. 감사위원은 변호사, 회계사, 관련 학과 교수, 감사 관련 기관 경력자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감사위원회는 광주시와 산하 기관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한다.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도 예외가 없다. 감사정책 및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감사를 시행하며 그 결과에 따른 처분 및 징계 요구권을 갖는다. 시민감사관제 및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운영하고 공무원 비리신고 센터도 운영한다.

그동안 감사업무는 감사관 등 내부 공무원이 감사계획 및 시행, 징계 수위 등 양정(量定) 결정과 처분요구 등을 해왔다. 이 때문에 일부 감사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개방형 직위로 뽑은 감사관이 당연직 위원장이 됨에 따라 단체장의 입김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지가 독립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감사위원회는 독립기구로 운영되는 만큼 보다 투명하고 엄정하며 열린 감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청렴 행정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중기센터 1곳만 최우수 가등급

7곳 나등급, 전남발전연구원 등 3곳 다등급

전남도 산하 출연기관 중 경영실적평가를 받은 11곳 가운데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유일하게 가등급을 받았다. 전남테크노파크 등 7개 기관이 나등급, 전남문예재단, 전남발전연구원, 강진의료원 등 3곳은 다등급이었다.

전남도는 14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의거해 16개 출연기관 가운데 11곳은 경영실적평가, 5곳은 경영컨설팅, 13곳은 CEO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영실적평가 대상 가운데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신임 센터장 취임 및 경영시스템 개선 등으로 지난해 다등급(82.57점)에서 가등급(91.76점)으로 2단계 수직상승했으며, 지난해 가등급(90.80점)을 받은 신용보증재단은 나등급(88.03점)으로 한단계 하락했다. 청소년미래재단과 생물산업진흥원은 지난해 각각 75.89점과 79.85점으로 최하등급인 라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88.73점, 89.19점으로 나등급이 됐다.

CEO성과계약평가에서는 테크노파크, 생물산업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여성플라자, 중소기업지원센터 등이 모두 90점을 넘겨 우수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94.80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전남도는 이달 내에 경영개선대책을 수립해 10월 보고회를 가진 뒤 2016년 3월 경영개선 추진상황 및 조치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또 이번 평가의 후속조치로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10~200% 차등 지급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선관위 온라인 설문 서비스

전남도선관위 전국 첫 지원 전남교육정책 학생 의견 수렴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설문서비스(K-Poll)를 이용해 전남교육정책연구소의 교육정책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설문을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는 전남도교육청 산하 기관이다.

이 연구소는 8월말부터 지난 10일까지 전남 관내 초·중·고교생 1704명을 대상으로 전남 학생교육의회 설립의 필요성, 의회 구성 및 선출방법, 의원활동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설문결과는 전남학생교육의회 설립 추진 및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교육정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에 나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설문서비스(K-Poll)는 정책결정·갈등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모바일을 통해 쉽고 빠르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이 처음이다고 전남도 선관위는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또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대표자 선출·안건 선택을 위한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도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손쉽고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투표율을 올리고, 투·개표의 정확성과 함께 시간과 비용 절감으로 선거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이번 온라인설문에 앞서 7월에 전남자연과학고 학생회장·부회장선거에 온라인투표를 지원한바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추석절 농수산물 장터'에 참석한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전남 농수산물 판매장(22개 시군·300개 품목)을 둘러보고 있다. 이번 장터는 18일까지다. 〈전남도 제공〉

전남산 농수특산물 '추석 서울장터' 나들이

22개 시·군 생산 300여 품목 10~40% 저렴한 가격 판매

전남도는 14일부터 5일간 서울광장에서 추석을 맞아 서울시가 주최하고, 12개 시·도가 참여하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2015 추석절 농수산물 서울장터'에서 전남산 농수특산물 판촉활동을 한다.

올해로 7회째인 서울장터는 전국 129개 시·군에서 생산한 농수특산물을 판매하는 전국 최대 규모 직거래 장터다. 전남 22개 시·군, 33개 생산자단체(농가)가 나주배, 영광 굴비·모싯잎 송편, 진도 멸치·울금 등 전남을 대표하는 300여 품목을 시중가보다 10~4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특히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생명의 땅 전남, 청결한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전남도 판매부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 종사자에게 위생모자, 앞치마, 테이블보 등을 갖추고, 시식 시 1회용 포크 등을 제공하는 등 타 시·도와 차별화된 판촉활동을 펼친다.

박경곤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직거래는 생산농가의 경우 중간상인에게 팔 때 보다 조금 더 받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유통 마진 없는 가격에 구입하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농수특산물의 판로 개척과 홍보를 위해 급변하는 유통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처, 농가 소득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F1 위약금 대처 전략적 마인드 부족"

이낙연 전남지사 호혜원 악취 대책 마련도 촉구

이낙연 전남지사가 호혜원 악취 문제, F대회 위약금 등 현안에 대한 담당 실국의 업무처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광양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또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과 관련 "지방회생을 저해하고 인구를 감축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지사는 14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악취 진원지로 꼽히는 호혜원 문제에 대해 "내년에 국비 140억원이 확보됐다"며 현재 호혜원 악취가 개선되지 않는 만큼 악취 현황을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

F1대회 미개최에 따른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 관련부서가 전략적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특히 행정자치부장관이 광양시에 있는 용암세장(순흥 안씨 종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광양시는 미온적이라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중앙정부에 예산을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우회적으로 광양시에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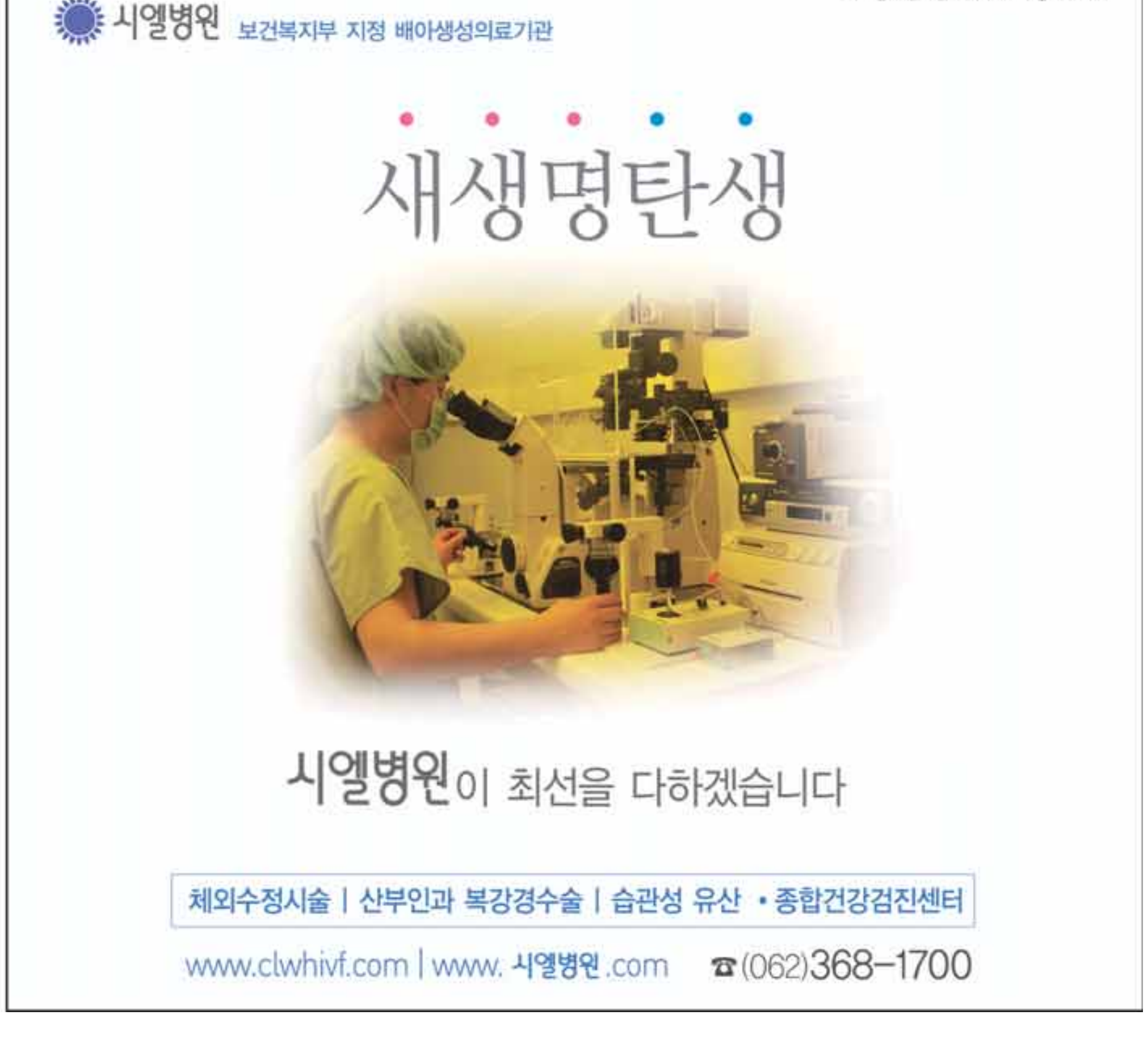
이 지사는 또, 작심한 듯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집중 정책에 대한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이 지사는 "지난 주말 일본의 총무장관을 역임한 마스다 히로야가 쓴 '지방소멸'이라는 책을 완독했다"며 "중앙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등 서울 집중정책으로 젊은이들을 지방에서 서울로 가게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서울을 '젊은이 불러다가 쥐어짜고 버리는 곳'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의회 농수산委 진도 전복 양식섬 조성 현장 점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14일 진도읍 전두리와 군내면 나리 해역에 조성하고 있는 전복 양식섬 조성 현장을 찾아 시설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준공 후 운영계획을 검토했다.

전복 양식섬 사업은 전남도가 전복양식 산업의 기업화·규모화를 통해 수출전략 단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부터 150억원의 국·도비를 투입해 전복가두리 100ha와 먹이시설인 해조류 양식장 300ha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10월 말 준공 예정이다.

김효남(해남2) 위원장은 "전복 양식섬 준공 후 특혜 소지가 없도록 민간에 이양하고, 전복 해상가두리 밑에 고부가가치 수출전략품종인 해삼을 입식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최근 의원총회를 열고 전남도공무원노조가 베스트·워스트 도의원을 선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